



중학생 과학자 직업체험교육인 수질분석 실험을 하고있다. /인천시

인천 수질연구소, 직업 현장체험 대상 확대

올 중·고등·대학생 77명 체험교육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지난 2012년부터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현장체험교육을 올해는 중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수질연구소는 교육부의 진로체험 서비스 플랫폼인 '꿈길' 및 인천시교육청의 위탁기관인 인천진로교육센터에 직업 체험처로 등록되어 있어, 직업체험을 원하는 학교이나 단체 누구나 쉽게 체험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2014년에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교육기부 우수공공기관에 선정됐다.

수질연구소는 이공계대학 출신자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고, 학생들에게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관으로 견학 및 실험실습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중·고등·대학생 77명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김종식 목포시장 '2018 아시아문화경제진흥대상'

자치단체 부문 선정

전남 목포시는 김종식 목포시장이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이사장 강성재)이 수여하는 '2018 아시아문화경제진흥대상' 자치단체 부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문화경제진흥대상은 아시아 국가간의 우호증대와 문화협력을 통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시아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지자체, 교류, 지역개발 부문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고 있다.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은 지난 25년 동안 아시아 20여 개국과 문화경제 교류, 기업인 글로벌마케팅, 지방자치단체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이 선정하는 '2018 아시아문화경제진흥대상' 자치단체 부문에 선정된 김종식 목포시장(가운데)이 지난 1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하고 있다.

홍보 마케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상식은 1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전남 목포=김원유 기자 wonyoo9700@

인천시, 생활임금 11.6% 인상 '9600원'

인천시는 2019년도 생활임금을 9600원(이하 시급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는 평균 가계

지출액, 주거 비용,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올해 8600원에서 1000원(11.6%) 인상한 96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250원이 많은 금액이다.

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시 분청뿐 아니라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19일(월)
음력 : 10월 12일

수도권 날씨
4~1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15 | 해질 / 17:1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본격화

‘공론화 논란’ 건설중단 3개월 만 국토부 승인 거쳐 내년 6월 착공

공론화를 통해 건설이 결정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공사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됐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다시 시작됐다.

2단계 구간도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재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결정을 받아들여 행정절차를 다시 시작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론화 논란으로 지난 8월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가 모두 중단된 지 3개월 만이다.

1단계 구간 용역은 83%까지, 2단계 구

간 용역은 10%까지 진행된 상태다.

시는 조만간 1단계에 대한 환경·교통 영향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용역·영향평가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비를 확정하고 내년 1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한다.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국토부에서 사업을 승인하면 내년 6월까지 1단계 구간을 착공할 방침이다.

2023년 개통 예정인 1단계 구간은 시청~상무역~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남광주역~조선대~광주역을 잇는 17.06km이다.

2단계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2020년 하반기 착공해 2024년 개통할 예정이다.

2단계는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을 연결하는 20km 구간이다.

1단계와 2단계가 연결돼 순환선으로 운영된다. 남광주역과 상무역이 환승역

이다.

2025년 개통 예정인 3단계는 지선 개념으로 백운광장~진월~효천역을 연결하는 4.84km 구간이다.

3단계에 대한 행정절차는 내년에 시작되며 2021년 착공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지난 16년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재검토되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면서 건설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시장이 취임 후 공론화로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점에서 재검토됐다.

공론화위원회는 40여일간 공론화 작업을 거쳐 다수의 찬성 의견을 토대로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이 늦어진 만큼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6월 1단계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귀어귀촌’ 모든 정보 한자리에 모았다

24일 ‘귀어스몰 엑스포’ 개최 20개 어촌 홍보부스 설치·상담

전남 지역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귀어스몰 엑스포’가 오는 24일 전남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귀어스몰엑스포는 전남도와 함께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가 지역 우수 어촌계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연계해 주저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경기·부산·대구·대전 등 전국 각지의 귀어귀촌 희망 도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다.

귀어인 유치에 적극적인 장흥 사금·어

수 안포 등 도내 20개 어촌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해 이들과 상담한다.

전남 어촌을 찾아 성공한 귀어 선배·우수 수산기업 대표·각 시군 귀어귀촌 담당자 등도 함께한다.

특히 어촌동체인 마을 어촌계가 직접 도시민에게 자신들의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계 가입 조건·빈집·일자리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또 귀어귀촌 의사를 밝힌 도시민에게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희망 어촌 투어 프로그램과 다음 달 1주일간 어촌체험 행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번 엑스포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수도권 등에서 설명회를 열었으며, 다양한 귀어귀촌 시책과 사업을 알리는 홍보 자료·귀어인 성공 스토리를 담은

책자도 제작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귀어의향단 계부터 준비·실행·정착, 이후 불편 상담에 이르기까지 윈스톱으로 도시민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청년 귀어가 어장을 고흥(8건 565ha)에 승인했다.

내년 5월에는 전남해양수산물기술원 강진지원에 전국에서 세 번째로 귀어학교도 개설한다.

전남도 양근석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전남에 귀어난 가구는 285가구 418명으로 전국의 31%를 차지했다”며 “전남 어촌을 찾아 인생 2막을 여는 도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 장흥=위지훈 기자 jh2255@

장흥 천관문학관서 송대성 화백 작품展

장흥군은 오는 11월 19일부터 12월 20까지 천관문학관에서 송대성 화백 초청 ‘매화 향기 천관에 물들다’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 작품은 송대성 화백의 유년시절부터 현 시간까지 탐진강에서 느꼈던 감성들과 여러 경험 속에서 표출된 색감을 한 화면 속에서 매화꽃으로 표현하고 있다.

매화도는 현대인의 자아에 내재된 감성들을 끄집어 내어 옛 매화도와 현재 시간의 연속성과 공간을 조형적인 언어로 담았다

천관문학관에서는 송대성 화백 작품 전시회 기간 동안에 어린이문학공연, 제1회 천성연분 문학축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송대성 화백은 장흥출신으로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했다.

1997년 서울 서경갤러리에서 ‘남도·터전’을 시작으로 2001년 ‘걸어가는 삶’ ‘광주 원봉갤러리 등 14회 개인전과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2000년 2004년을 비롯하여 200여회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전남 장흥=위지훈 기자



17일 평택해양수산물청(청장 홍원식)과 평택해양경찰청(청장 여성수)·국립해양수산물정보원 3개기관은 전국항에서 합동으로 소형선박 해양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평택해양수산물청, 소형선박 해양안전 캠페인

평택해양수산물청은 지난 17일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레저선박, 고무보트 등 소형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해양수산물정보원 및 평택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곡항 마리나는 수도권과 인접해 해양레저활동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항해자의 안전의식 결여에 따른 엔진고장, 어망걸림, 연료부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해양안전의식 제고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육상의 도로교통 표지 역할을 수행하는 항로표지 소개 및 이용방법, 구명조끼 착용 방법, 소형선

박 항행 참고용 앱 ‘해로드’ 사용방법, 선박 항행안전 기본 수칙 등을 홍보했다.

홍원식 평택지방해수청장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항로표지를 포함한 안전정보를 이용자 중심으로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용자에게 “바다에 나갈 때는 해로드(海Road) 앱을 스마트폰에 꼭 설치하고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성수 평택해양경찰서장은 “관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및 대응체계 확립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평택=이보현 기자 bhlee7777@